

목회의 프락



정웅영 목사
청풍은교회 담임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잠언 24장 16절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담배를 끊어 보고자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1월을 넘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니다.
그 증거로 매해 1월이면 담배를 판매하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가 2월이 되면 원래로 돌아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 중에는 중간에 돌아서고 싶지만 이미 새해 시작부터 결단을 망쳤으니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한 곳에서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탄과의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저주하는 것과 헐뜯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등의 시험을 받으며 매일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한 곳에서 진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는 이기겠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 첫 주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재정비하며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도 첫걸음을 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이주의 추천도서



인생 오후의 질문 심리학과 신앙의 눈으로 풀어낸 우리 중년 이야기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걸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추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40대 이상 중년에 접어든 이들
- 중년에게 전도하려는 이들
- 중년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 중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

청춘은 갔어도 아직 늙지는 않은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현명하게 나이 들 수 있는가?”
“오후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까?”
“내게도 기회가 남아 있을까?”
“상실이 파도쳐도 살아갈 수 있는가?”

인생 후반이 흔들리지 않을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상담
짧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늙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서운한 사

저자 : 황정희 | 출판사 : 아르카



람, 사실상 청춘은 갔어도 아직 늙지는 않은 사람, 중년이다. 인생의 오전이라 할 어리고 젊을 때도 인생의 질문이 생기지만, 인생의 오후라 할 중년에 생기는 질문은 훨씬 진지하고 절박하기 마련이다. 곧 해가 질 것 같기 때문이다.

남은 인생의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무게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이때의 ‘질문’은 ‘고민’의 다른 표현이 된다. 답과 위로가 필요해진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인생 오후의 질문이 더 막막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자라 하여도 인생 오후의 질문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어려울 수도 있다.

상담학 박사이며 오랜 세월 사랑의교회와 분당우리교회에서 상담가와 교회 사역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교회에서 만난 중년의 신앙인들에게도 인생 오후의 질문이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12년간 분당우리교회 교구 전도사로 사역하는 동안 주로 중년의 성도들을 돌봤는데, 그들의 고민과 질문을 수시로 들으며 상담해야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정리해 교회의 가정 세미나에서 강의했고, 특별히 교구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방송으로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정리해온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책 읽기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김학철 지음/
책있는사람 펴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 25년 이었다는 생각을 하지만, 연말연시가 될 때마다 이런 후회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부족함을 새삼 느끼며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된다. 지난 한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던 사회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속에 교회의 역할과 위치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민의 시점을 보내며 기독교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 책을 소개해본다.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의 저자는 김학철 교수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소장, 한국기독교교양학회 부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신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독교 교양을 학문의 주제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교양학 및 신약성서를 주제로 수십 편의 논문과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세바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CBS <잘잘법>, <삼프로TV> 등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 성서와 기독교 교양을 소개하고 있다. 책 제목을 보며 교양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교양이라고 하면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 등을 즐기거나 풍부한 문화 지식, 혹은 말투나 태도가 세련되고 타인에 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소양이라고

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가 말하는 교양의 개념은 독일에서 교양의 현대적 개념에 큰 영향을 준 ‘빌동’ 개념을 이야기한다. 빌동은 인문학, 예술,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회 및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주제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양은 자유인에 적합한 소양인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형성과 시민성, 비판적 성찰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기독교를 교양으로 읽는다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다소 불

경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저자는 기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독교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전달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좋은 책을 읽어보라하며 그 속의 진리를 습득하라고 강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종교에 대한 문해력이 결핍된 시대에 전통적 방식의 선교 전략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기독교의 탄생과 역사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독교의 모습을 차근차근 풀어가며 기독교에 대한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서술해 가고 있다. 강압적이고 무지성적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보편적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초기 예수 운동 선교사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했고, 그 증언으로 인해 수난과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열정을 쏟았습

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독특하고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네의 신을 선교하러 돌아다니거나 포세이돈 신앙을 열심히 전파하는 모습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책을 덮으며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을 갖춘 교회와 신앙인이 많아져 적어도 타인이 이

해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병모
한국실로영성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6(신안동)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9(금암동)

전남 순천시 중앙3길 4(장천동)